

깜짝 발탁 이정협 ‘깜짝 데뷔골’



4일 오후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호주 아시안컵 대비 최종평가전 한국 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후반 이정협이 팀의 두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사우디와 아시안컵 평가전 2-0...슈틸리케호 A매치 첫 승리

슈틸리케의 선택이 적중했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인 4일 호주 시드니 파라마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아시안컵이 주목하고 있는 스타 손흥민이 경기 내내 매서운 슈팅을 선보이며 행운의 자책골을 만들었고, 슈틸리케가 선택한 '신데렐라' 이정협(상주 상무)이 A매치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2-0 승리를 완성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치러진 마

지막 실전이자 오만과 쿠웨이트를 겨냥한 맞춤형 평가전에서 활동량이 많은 이근호(엘 자이시)를 중심으로 좌우 날개에 손흥민(레버쿠젠)과 조영철(카타르SC)을 배치한 4-2-3-1 전술을 들고 나왔다. 구차철(마인츠)은 처진 스트라이커로 이들의 뒤를 버텼다. 대표팀 합류가 늦어진 기성용(스완지시티)을 대신해 '멀티플레이어' 박주호(마인츠)가 한국영(카타르SC)과 중원을 맡았다. 김진수(호펜하임), 정현수(광주주부리), 김주

영(서울), 김창수(가시와 레이솔)로 포백을 세운 슈틸리케 감독은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에게 맡겼다. 전반 16분 손흥민이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 위치해 있던 손흥민은 구차철이 흘려준 공을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다. 대포알처럼 날아간 공은 상대 골키퍼 손끝을 스친 뒤 크로스바를 때리고 튀어나왔다. 전반 22분 두 번째 슈팅도 손흥민의 몫이었다. 슈틸리케호 출발 후 5차례의 평가전에서 3차례 골문을 지킨 김진현은 전반 27분 알 아베드가 문전에서 오버 헤드 킥으로 찍어 내린 공을 뚫음 날리며 처내, 감독의 신뢰에 화답했다.

중반 이후 한국은 거친 볼터치 속에 공·수에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며 0-0으로 전반을 마무리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4명의 선수를 대거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이근호가 나가고 남태희(레쿠아)가 들어왔고 김진수와 이명주(울산 아인), 구차철과 한교원(전북 현대)이 자리를 바꿨다. 또 김진현 대신 김승규(울산 현대)가 장갑을 끼며 골키퍼 경쟁에 나섰다. 패스를 가다듬은 한국이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했고, 후반 21분 행운이 따랐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때린 프리킥이 문전으로 빠르고 낮게 파고들었고, 오사마 말 하우사위의 몸에 맞은 공이 그대로 골대로 향하면서 사우디아

라비아의 자책골이 됐다. 후반 추가 시간에 짜릿한 추가골이 나왔다. 후반 20분 조영철과 교체해 들어간 이정협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김창수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대표팀 초보 이정협이 만든 2-0의 짜릿한 승리였다. 대표팀의 2015 아시안컵 슬로건은 '타임 포 체인지(Time for change)'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모의 고사를 통해 아시안컵의 마지막 틀을 짠 대표팀이 변화의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한국은 오는 10일 오후 2시 호주 캔버라에서 오만을 상대로 아시안컵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특별한 시작'

남기일 감독, 정식 사령탑 선임·1부리그서 새 출발



광주 FC 남기일 감독

대행 교리표를 떼 남기일 광주 FC 감독이 또 다른 비상을 준비한다. 광주 FC는 4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승격을 지휘한 남기일 감독대행을 정식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자진사퇴를 한 여범규 감독에 이어 지휘봉을 잡은 지 1년 4개월만이다. 시즌 중도에 팀을 맡은 남기일 감독은 3위로 2013 시즌을 마감하며 사령탑으로 연착륙을 했다. 본격적으로 자신의 축구를 펼치게 된 지난 시즌,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참대했다.

힘난한 출발이었다. 팀의 어려운 사정상 기존 34명의 선수단을 29명으로 축소해 몸집을 줄여야 했고, 25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하면서 재정단에 가까운 리빌딩을 단행해야 했다. 출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시즌 초반에는 리그 9위까지 추락하기도 하는 등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시즌 중반부터 광주의 색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다. 팀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하면서 승점이 쌓여갔다. 정규리그 최종전인 고양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4강에 자리를 한 뒤 무서운 저력이 발휘됐다. 강원을 시작으로 안산, 경남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4위에서 클래식 리그 승격이라는 기적 같은 드라마를 연출했다. 오랜 시간 따라다녔던 대행 교리표를 떼어낸 남기일 감독은 오는 7일 선수들을 소집해 정식 감독으로 새로운 2015시즌을 준비한다. 남기일 감독은 "대행 신분으로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지만 광주만의 색을 입히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면서 "믿어준 구단에 고맙고, 클래식 무대에서도 당당히 맞서며 광주만의 플레이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금호고 출신의 남기일 감독은 부천과 전남, 성남 등에서 프로 생활을 했으며 지난 2007년 K리그 통산 19번째로 30(득점)-30(도움)클럽에 가입했다. 그는 파워와 실세 없는 돌파로 현역 시절 '탱크'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유니폼을 입고 있던 2009년 경희대학교 스포츠 경영대학원에서 '프로축구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조직유효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

전남 색깔은 '다공'

(다치고 공격)

정석민·이지남 등 영입...공·수 강화 '새 판 짜기'



전남드래곤즈 노상래 감독

'노상래호'의 새 패들이 맞춰져가고 있다.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는 신임 노상래 감독을 앞세워 2015시즌 리빌딩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은 5일 구룡산 전방대에서의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12일 태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선수 영입을 통해 새 사령탑과 맞게 될 2015시즌 준비도 마쳤다. 전남은 4일 공수 조율에 능한 '게임 메이커' 정석민과 '골 넣는 수비수' 이지남을 영입했다. 정석민은 현대고-인제대를 거쳐 2010년 포항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제주-대전을 거쳐 K리그 통산 85경기에서 1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세트피스 상황시 헤딩능력이 탁월하고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몸싸움, 전방 패스 능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수비형 미드필더다. 안양중-고를 거쳐 2002년 서울을 통해 프로에 데뷔한 수비수 이지남은 경남, 대구에서 선수 생활을 하며 2013시즌까지 K리그 통산 130경기에 출전해 9골 1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중국 슈퍼리그의 허난 쟈예로 이적했다. 186cm의 큰 키를 활용한 공중볼 장악 능력, 대인마크와 수비 리딩능력이 뛰어나다. 정석민, 이지남을 통해 경기 운영 전술과 수비력 강화를 꾀한 전남은 앞서 골키퍼 김민식을 시작으로 공격수 오르시치, 수비수 최효진을 영입하며 2015 시즌 준비를 끝냈다. 전남이 골문 안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한 김민식은 영등포공고-호남대 출신으로 2008년 전북 현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올 시즌까지 61경기를 소화했다. 2011년에는 전북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하며 전북 우승에 일조했다. 최효진으로 수비진도 두터워졌다. 최효진은 K리그 통산 279

경기에 출전해 17골 19도움을 기록한 베테랑 선수로 중동고-아주대를 거쳐 2005년 인천을 통해 프로에 데뷔했다. 서울에서도 활약한 그는 중앙-측면을 넘나드는 활동력과 돌파력이 장점으로 미더필더와 윙백, 풀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다. 공격력 강화 조각은 크로아티아 신예 공격수 오르시치(FW)로 맞췄다. 크로아티아 연령별 대표(U-18, 19, 20, 21)를 거친 오르시치는 노련한 플레이와 빠른 발을 이용한 측면 돌파, 정확한 크로스로 무장한 측면 공격수다. 전남은 오르시치의 원 소속구단인 크로아티아 HNK Rijeka와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